KINU 한반도 동향

2021년 4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Ⅰ. 주요 정세

Ⅱ.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러시아

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
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편집책임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작 성 자 **김혜민** 기획조정실 연구원
서양아 북한연구실 연구원
김아영 기획조정실 연구원
용혜민 평화연구실 연구원
김소연 평화연구실 연구원
권주현 북한연구실 연구원
윤훈희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원
탁민지 기획조정실 연구원

이 달의 주요 연구동향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세종정책브리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본격적으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하면서 2월경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미국

The Case for Maximizing Engagement With North Korea 38 North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거의 끝나 가면서 과거 미국이 고립과 압박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 했던 정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중국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국의 대중국 전략: 헤징개념 틀에 기초한 분석 국제논단

한국의 대중국 전략은 지역 및 국제환경의 불확실성과 한국이 처한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향후 상당 기간 헤징(hedging)전략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

일본

북한 '올림픽 불참' 뒤에 있는 비참함 동양경제

북한의 올림픽 불참은 보건위생적 결정이자, 정치적 결정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고 있다 rg.ru

4월 2일과 3일 각각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안건은 크게 볼 때 역내 안보와 안정에 관한 협의로 국한할 수 있지만, 이는 너무 단순화 된 표현임...

북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결론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노동신문

4월 9일 노동신문 1~6면을 할애하여 8일에 진행된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 비서가 내린 결론과 폐회사 전문을 게재함...

I 주요 정세

4.3.(토)

한미일 안보실장 회동, "북한 비핵화 협력 재확인... 유엔 결의 이행 필요"(미국 워싱턴 D.C.)

서 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안보국장 참석

4.4.(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중국 푸젠성 샤먼)

정의용 외교부 장관-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참석

양국, 가급적 조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외교안보(2+2) 대화를 상반기에 추진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협력 가속하기로 합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일본인 납치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해 해결하겠다"(후지TV 인터뷰)

4.5.(월)

중일 외교장관 전화회담, "북한 정세 논의, 비핵화 협력"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모테기 도시마쓰 일본 외무상 참석

4.6.(화)

북한,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수 보호 위해"

4.8.(목)

미국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1],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4/15) 개최 공지

4.9.(금)

애런 아놀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 "북한, 가상화폐 해킹 및 돈 세탁 정교화... 앞으로도 관련 활동 지속할 것"(영국 합동군사연구소 주최 webinar)

외교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조야를 대상으로 법 취지를 설명하는 노력 강화하겠다"

백악관, "대북제재, 북한주민 겨냥한 것 아냐..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중요"(대변인 브리핑)

미국 국무부, "(미국의 새 대북정책 관련) 미국 및 동맹에 대한 북한 위협 감소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언론 브리핑)

1)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4.15.(목)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한반도 핵문제 해결 위해 6자회담 재개 불가피”

미국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 개최

한국에 법 개정 주문도 나와

4.16.(금)

미일 정상회담 개최(미국 워싱턴 D.C.)

양국 정상, “북한 비핵화 전념 재확인… 공동안보에 한미일 협력 필수”

4.20.(화)

중국, “북한과 방역 안전 확보하여 교류·협력 강화할 것”(외교부 정례 브리핑)

중국, “북중은 우호적 이웃, 정상적인 무역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4.21.(수)

문재인 대통령, “북미 빨리 마주앉아야… 바이든 역사적 대통령 되길”(뉴욕타임즈 인터뷰)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의 생존 문제”

4.27.(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판문점선언, 역사 아닌 현재… 북한, 조속히 대화에 나오길”(4.27 판문점선언 3주년 민화협 주관 행사 축사)

4.28.(수)

조 바이든 대통령, “동맹국과 협력하여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응할 것”(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상황 지독… 불의 밝히는 탈북자 용기에 경의”(“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대변인 성명)

4.30.(금)

스콧 베리어 미국 국방정보국장, “북한, 한미를 상대로 입지 강화를 위해 핵·미사일 시험 가능성 있다”(상원 군사위 청문회 제출자료)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Ⅱ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김석진, 『Online Series』, No. 2021-05, 통일연구원, 2021.4.12.)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매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음.
  -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은 석탄 밀수출,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 여러 가지 제재 회피 행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제재 회피 규모가 제재를 무력화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님.
  - 제재 회피를 통해 당장의 경제적 피해는 다소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 제재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 제재는 완벽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을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원문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Id=1549258

■ 북한 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특징

(이기동, 『Issue Brief』, 제256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4.16.)

- 북한이 최근 말단기층당조직인 노동당 세포비서대회를 개최함.
  - 기층당조직 강화를 통해 전당을 강화하려는 목적임.

-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참석하여 세포사업을 총화하고, 세포 강화를 위한 10대 과업과 세포비서들이 견지해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제시함.

- 본 대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산주의'를 8차례 언급함. 이는 정상적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맥락임.
  - 둘째, '고난의 행군 결심'이라는 표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 제재유용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을 조기 진화하려는 의도임.
  - 셋째, 비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 현상과의 투쟁을 역설했음.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인 집단주의 약화에 대한 위기감의 반영임.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 넷째, 주요 정치대회 중이나 종료 이후 집단적 학습과정을 만들었음. 과거 중앙보고대회와 달리, 실무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실효적인 행사로 탈바꿈하기 위한 목적임.

※ 원문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09967&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정성장, 『세종정책브리프』, No. 2021-8, 세종연구소, 2021.4.29.)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본격적으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하면서 2월경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 북한은 최선희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는 대화 거부 입장을 천명
  - 바이든 행정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일/방한(3/15~18), 미중 고위급 회담(3/18, 알래스카), 그리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4/2, 워싱턴 D.C.)를 통해 동맹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중국의 협조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해 감.

-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핵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미 공동의 대북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가동되었던 한미워킹그룹 수준을 넘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의 채널 제도화 필요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임.
  -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참가하는 4자회담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6자회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원문 https://www.sejong.org/boad/1/egoread.php?bd=3&itm=&txt=&pg=1&seq=5945

■ 다자기구에서의 '평화경제'의 개념 및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이효영, 『정책연구시리즈』, No. 2020-19, 외교안보연구소, 2021.4.30.)

-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평화경제' 논의는 단순한 평화 구축을 넘어 '평화 지속화(sustaining peace)'를 의미함.
  - '평화 지속화'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이행 촉진 기제로서 WTO에 가입하는 방안은 지난 25년간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음.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 북한의 경우에는 '평화 지속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요인 중 교육·보건 등 공공자원의 분배, 인적자본의 수준, 법·제도의 준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체제전환국 중 WTO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극적 평화 지수(PPI)'의 세부지표 중 대부분에서 아직 뒤처져 있음.

• 북한의 '평화 지속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문제는 대외적 관계와 효율적인 정부 기능 및 폐쇄성으로 인한 정보 교류 제한 등이므로 국가제도 및 시장의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에 주력해야 하며 주요국과의 정상적 교역 및 대외관계 구축이 중요할 것임.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기제로서 북한의 WTO 가입은 '평화 지속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북한이 WTO 가입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최소한 북한의 계획무역제도에 따른 수출입 통제 등 절차적 불투명성으로 인한 정부 기능과 부정부패의 측면에서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반도의 '평화경제'가 국제사회의 '평화경제'와 일맥상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평화경제'의 개념을 수용하여, 북한 경제협력 추진의 방향과 방법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WTO 가입 절차가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자발적 체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긍정적 신호이자 대북한 개발협력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실질적인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WTO 가입 절차 개시 방안은 대북 경제제재 상황 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으며 상당수의 사회주의체제 기반의 국가들이 WTO 가입 절차를 통해 국가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국내제도의 개혁을 외부의 힘을 빌어 추진했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원문 http://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Area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13782&boardSe=pbl&koreanEngSe=KOR&ctgrySe=06&menuCl=&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4.01.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전략과 북핵 협상 재개 정책	홍현익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1/egoread.php?bd=2&itm=&txt=&pg=1&seq=5918
04.13.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브루스 W. 베넷, 최강, 고명현 외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b5-%ec%9c%84%ed%98%91-%ec%96%b4%eb%96%bb%ea%b2%8c-%eb%8c%80%ec%9d%91%ed%95%a0-%ea%b2%83%ec%9d%b8%ea%b0%80/
04.27.	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선언의 대내외적 함의	안제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www.inss.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09978&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04.28.	미국의 이란 핵협상 전망과 바이든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www.inss.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09981&bbsId=ib&page=1&searchCnd=0&searchWrd=
04.29.	중소분쟁 시기 북한 등거리 외교의 특성과 현재적 함의	이상숙	외교안보연구소	http://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Area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13780&boardSe=pbl&koreanEngSe=KOR&ctgrySe=06&menuCl=&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04.30.	북한의 무역: 발전, 구조 그리고 변화	북방경제실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제23권 제4호, pp. 3-29.
04.30.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빈곤 종식)과 2(기아 퇴치)를 중심으로	송철종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제23권 제4호, pp. 31-46.
04.30.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 구성: 국가 예산 수입법에 따른 항목 구성과 내용	전경주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제23권 제4호, pp. 47-61.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2. 미국

■ Biden's Pragmatic Play on North Korea

(Matt Abbott, *The Hill*, 2021.04.12.)

- 바이든 대통령은 첫 기자 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당신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대외정책 현안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함.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 관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 검토(policy review) 이후 발표될 수도 있지만, 관계자들은 이미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관해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통찰력을 제공했음.

-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국민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이라 발언함.
  -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외교를 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비핵화의 최종 결과가 그 조건일 것"이라고 밝힘.

-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에 실패해왔음.
  - 프라이스 대변인은, "2021년은 2016년도 아니고 2009년도, 1994년도 아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달라진 상황과 여건, 그리고 리더십이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 온 과제"라고 밝힘.
  - 한편 북한의 핵무기는 규모와 정교함 면에서 발전해옴.

- 미국은 북한을 장기적인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준비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이 이익을 증진시키고,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전략에 집중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남아있음.

- 미국 행정부는 교육 및 지역 연구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다 폭넓은 투자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발현될 차기 과제들을 물려받을 차세대 미국인들을 참여시켜야 함.
  - 다양한 분야, 부문 및 배경의 전문가의 자문을 얻음과 동시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함.

- 북한이 '정보 수집의 블랙홀'이라는 평판이 있지만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북한 관련 정보와 통찰은 여전히 풍부함.
  - 이는 오픈 소스 정보(open source information)의 확산과 위성 이미지 같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의 발전 덕분이기도 함.
  - 행정부는 오픈 소스 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현재 접근 가능한 정보를 보완하고 연구자와 대중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음.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 미국 행정부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단기 목표를 추구해야 하며, 동맹국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진전을 막는 것을 비롯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불법 행위, 특히 사이버 범죄 완화에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
  - 2019년~2020년 11월 사이에만 전 세계적으로 3억 1640만 달러의 가상자산 도난 사건이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의 소행으로 밝혀졌으며, 방치한다면 미국 기업들과 대중들에게 심각한 안보와 재정상의 위험을 줄 것임.

※ 원문 https://thehill.com/opinion/national-security/547596-bidens-pragmatic-play-on-north-korea

■ 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Bruce W. Bennett, Kang Choi, Myong-Hyun Go, Bruce E. Bechtol, Jr., Jiyoung Park, Bruce Klingner, and Du-Hyeogn Cha, *RAND Corporation and The Asan Institue for Policy Studies,* 2021.04.12.)

-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완화하려는 한미의 주요 전략은 비핵화 협상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 실패해왔고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2027년까지 북한이 핵무기 200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십 발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한반도 전구급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 북한은 강압과 억제를 위해 핵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할 것
  - 핵을 실제 공격에 사용하기보다는 핵보유를 바탕으로 강압과 억제를 행사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며 정권에 대한 위험이 덜하기 때문
  - 그러나 북한 정권이 내부 문제 해결용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여 제한적이거나 또는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은 핵무기가 자산이 아닌 부담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어떤 형태의 비핵화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응징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함.
  -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행동을 취하면 북한의 적대감이 유지 혹은 강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정보전 및 심각한 상태의 물리적 교전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한미는 북한의 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한 진지한 비핵화 협상 가능성을 항상 열어 놓아야 하며, 이를 통해 아주 조금이라도 위협이 감소된다면 도움이 될 것
  -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대응에 대한 걸림돌은 중국의 반대인데, 중국 또한 핵확산을 포함해 북한의 주요 핵무기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설득하기 위해 정보전을 대폭 활용해야 함.

※ 원문 https://www.rand.org/pubs/perspectives/PEA1015-1.html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The Case for Maximizing Engagement With North Korea

(Frank Aum and Deniel Jasper, *38 North,* 2021.04.16.)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거의 끝나 가면서 과거 미국이 고립과 압박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 했던 정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초기 신호는 바이든 행정부가 압박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나타냄.
  -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법이 북한이 강압적인 전술에 굴복할 것이며, 중국이 이러한 노력에 협력할 것이라고 잘못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대신 미국은 불안정하고 핵무장한 북한의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함.
  - 물론 장기적인 목표로서 억지력을 유지하고 비핵화를 보존하는 것은 필수적
  - 그러나 미국과 지역 안보 차원에서 실질적인 접근은 북한 정부 및 주민들과 교류 할 수 있는 기회와 채널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
  - 정부 및 비정부 차원에서 더 크고 의미있는 상호 작용은 각자의 이해와 우려를 명확히 하여 오해와 오판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북미관계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고립과 압력의 정책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적대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안보 위협(a hostile and inscrutable security threat)으로 남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핵 재앙을 촉발할 수도 있음.
  - 그러나 포괄적인 포용 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협력하여 서로에 대한 미묘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를 높이고, 위협 인식을 줄일 수 있음.
  - 이는 결국 핵과 재래식 위험을 관리 및 감소시키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

※ 원문 https://www.38north.org/2021/04/the-case-for-maximizing-engagement-with-north-korea/

Falling in Love Again: U.S.-North Korean Relations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iam L. d'Ambruoso, *The National Interest*, 2021.04.26.)

- 하노이 정상회담의 공방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핵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교전은 전쟁의 가능성은 줄이고 협력의 가능성은 높임.
  -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둔 고위급 포용정책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것임.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 오늘날, 핵보유국들은 총력(full-scale)전의 위협을 줄이고자, 역설적으로 오히려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협력의 가능성을 가짐.

- 트럼프의 외교정책에서 아쉬웠던 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주는 첫 번째 시사점은 정부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점임.
  - 회담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저비스(Robert Jervis)가 "핵전쟁의 위험은 정치적 풍토, 특히 전쟁의 필연성에 대한 믿음에 의해 영향 받는다. 핵무기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기대와 신념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듯, 정기적인 회담은 북미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유지에 기여하도록 할 것임.

- 두 번째 시사점은 미국 행정부가 향후 북한의 핵무기 실험에 대해 과잉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임.
  -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군사력 동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이는 불필요함.
  - 실험에 대한 과잉 반응은 과소 반응보다도 더 위험한데, 미사일 방어, 대규모 군사훈련 등의 요소가 합쳐지고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우발상황과 통합되면 전쟁은 불가피할 것임.

- 세 번째로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됨.
  - 핵무기가 서로 공통점이 없는 국가들 간 평화라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는 있지만, 국가들 간 협력의 전제조건은 아님.
  - 미국은 공황에 빠지거나 선취를 감행하기 보다는 포용과 인내로 비핵화를 추구해야만 함.

- 이미 국제정치의 수많은 학파가 전 세계가 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살 수 있으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저비스는 냉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해, "우리가 좋든 싫든 공동방위는 이제 동맹국뿐만 아니라 적대국에게까지 확대된다"고 저술함.
  - 핵무기는 때로는 결속의 끈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아 북한을 비롯한 현재의 적대국들 간 이해관계가 겹치면서 수반되는 비핵화도 염두에 두어야 함.

※ 원문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falling-love-again-us-north-korean-relations-and-biden-administration-183697?page=0%2C1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4.05.	Detente May Be an Option With North Korea	Walter Russell Meadac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articles/detente-may-be-an-option-with-north-korea-11617661150
04.06.	The Japan-U.S. Summit and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Scott W. Harold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1/04/the-japan-us-summit-and-cooperation-with-south-korea/
04.11.	On North Korea, Biden Should Borrow from Trump's Singapore Declaration	Jay Solomon	*The Hill*	https://thehill.com/opinion/national-security/546722-on-north-korea-biden-should-borrow-from-trumps-singapore?rl=1
04.12.	Anticipating the Biden Administration's New North Korea Policy	David Maxwell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anticipating-biden-administration%E2%80%99s-new%C2%A0north-korea-policy%C2%A0-182527
04.18.	North Korea's New Arduous March: What Biden Should Do (And Not Do)	Ted Galen Carpenter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orth-koreas-new-arduous-march-what-biden-should-do-and-not-do-183097
04.18.	How to Stop North Korea From Becoming a Nuclear Weapons Superpower	Doug Bandow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how-stop-north-korea-becoming-nuclear-weapons-superpower-182864
04.19.	Another 'Arduous March' Would Be a Major Failure for Kim Jong-un	Robert Kelly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another-%E2%80%98arduous-march%E2%80%99-would-be-major-failure-kim-jong-un-183129
04.19.	U.S.-North Korea Relations will Follow Same Pattern Despite Coronavirus	Denny Roy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us-north-korea-relations-will-follow-same-pattern-despite-coronavirus-183117
04.19.	North Korea Wants to Rebuild Its Economy but Will Keep Testing Weapons Anyway	Malcolm Davis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orth-korea-wants-rebuild-its-economy-will-keep-testing-weapons-anyway-183139
04.20.	North Korea Is More Isolated Than Ever Before	Thomas Byrne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orth-korea-more-isolated-ever-183181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4.20.	COVID-19 Exacerbates North Korea's Bad Choices	Bruce Bennett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covid-19-exacerbates-north-korea%E2%80%99s-bad-choices-183236
04.21.	Reinventing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as Cooperative Endeavors	Łukasz Kulesa	CFR	https://www.cfr.org/report/reinventing-nuclear-disarmament-and-nonproliferation-cooperative-endeavors
04.22.	North Korea's Coronavirus Economic Downturn Has Made It Weak	Daniel R. DePetris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orth-korea%E2%80%99s-coronavirus-economic-downturn-has-made-it-weak-183389
04.26.	Reality Check #5: Learning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	Robert A. Manning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content-series/reality-check/reality-check-5-learning-to-live-with-a-nuclear-north-korea/
04.30.	Estimating North Korea's Nuclear Stockpiles: An Interview With Siegfried Hecker	38 North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21/04/estimating-north-koreas-nuclear-stockpiles-an-interview-with-siegfried-hecker/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3. 중국

■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국의 대중국 전략: 헤징개념 틀에 기초한 분석

(한셴동·자오샤오, 국제논단, 2021.No.02.)

(韩献栋·赵少, 中美战略竞争背景下韩国的对华战略：基于对冲概念框架的分析, 国际论坛, 2021.No.02.)

- 한국의 대중국 전략은 지역 및 국제환경의 불확실성과 한국이 처한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향후 상당 기간 헤징(hedging)전략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
  - 높은 대중국 경제 의존도, 한미동맹, 대북정책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질서 변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는 한국의 대중국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한국의 대중국 헤징전략은 일종의 '연성헤징'으로 정치, 경제, 군사안보 분야를 포괄하며 경제적 다변화와 군사안보적 균형을 보완하는 것이 특징

- 한국의 대중국 헤징전략은 중국의 주변국 관계 안정화 전략과도 연관되어 있어 양국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잠재적 도전요인도 상존
  - 한중관계의 가장 큰 위협은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로 사드(THAAD)문제가 양국관계에 준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최근 4개국 안보대화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INF 탈퇴 후 중거리 미사일의 동아시아 배치 문제도 갈등을 촉발할 수 있음.
  - 한국의 국내정치적 상황 변화도 한중관계 안정에 도전요인이 될 수 있음.
  - 미국이 대중국 전략적 포위망에 한국을 포섭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내 정치적 분화가 맞물리면 한국에서도 대중국 견제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

- 미국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4개국 체제 편입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자 차원의 동맹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 보건, 군비통제 등에서 미중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신중한 태도와 차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을 4개국 체제 편입시켜야 할 시급성 감소
  -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든 정부 출범과 동시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의가 이루어졌고 외교·국방신임장관의 외교데뷔전도 한일 순방에 맞추어 이루어졌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향후 양국 협력의 강화가 예상됨.

- 중국은 미국 동맹국들과의 양자관계 관리를 통해 미중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한중 경제무역은 양국관계의 구심점으로 산업 고도화와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성장을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유지하면서 주변국에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여 접근해야 함.

- 미국이 동맹자산을 중국 억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미동맹 강화에도 신중을 기하고 안보 분야에서의 연성헤징 전략을 지속할 수 있음.
- 나아가 한중 양국은 협력의 범위를 인문, 교육, 문화, 환경 등 저위 정치(low politics)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원문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APJ&dbname=CAPJLAST&filename=GJLT20210409001&v=EiauZHPrN2gcEH0chpP%25mmd2FYmYTgWuf2YW3lq3EWPAu5Wh1UPiqTBuiLwH461ET5h0p

■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북핵 레퍼토리'를 바로 보아야

(잔더빈, 환구시보, 2021.3.31.)

(詹德斌, 韩国要看清美日的"朝核戏码", 环球时报, 2021.3.31.)

- 2021년 3월부터 한반도 정세가 과거의 익숙한 레퍼토리대로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냉철한 고민과 대비가 필요
  - 3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며 미사일 시험발사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자,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 '정세위협'을 거론하며 강경하게 대처
  - 미국과 일본은 동맹체제로부터 '이탈' 경향을 보이는 한국에게 북핵 위협을 계기로 여론 조성과 외교적 압박을 통해 미국의 의지를 재차 확인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정책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며,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의 의견을 더 중시하기를 원함.
  - 반면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순순히 미국의 안보협력체에 편입하지 않자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북한 위협'을 가중시켜 동맹국 보호의 명분을 만들고 한국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도 요원해질 것
  - 미국은 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 외교적 고립, 인권 문제 등으로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북한이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면 자연스럽게 한미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 한국은 대북 대화 추진의 명분과 주도권을 잃고,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응하면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 지나치게 낙관적 기대를 갖지 않도록 각성해야 함.
-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게 상업적 논리로 노골적인 요구를 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논리로 자연스럽게 미국과 동맹국 간의 타협을 강조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 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변화가 없음.
- 중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으로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며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희망

※ 원문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2WbuBoR43G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2021. No.4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와 특징 〈后疫情时代国际格局的新变化与新特征〉	저우팡인 (周方银)	당대세계 (当代世界)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LAST2021&filename=JSDD202104002&v=R5r4pkxIn1%25mmd2FSvAfigPz4QjrOQIaapiMe6vo1iaW6uAKJHN2E2kgFM4NoUGQPMt5y
2021. No.2	인도·태평양전략 시각에서 본 인도-아세안 관계 〈"印太"视角下印度与东盟关系〉	닝셩난 (宁胜男)	인도양경제체연구 (印度洋经济体研究)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YDYY202102002&v=MOeQ5Rzb%25mmd2FD%25mmd2BjMVgI7jaHmRN%25mmd2B53q59pvd5xm9NjdjFpI1fbGisbfWc08COvuvjzGP
2021. No.2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하의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 관계 구조 분석 〈美国"印太"战略下的美印战略伙伴关系解构〉	샤오쥔 (肖军)	인도양경제체연구 (印度洋经济体研究)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YDYY202102001&v=MOeQ5Rzb%25mmd2FD%25mmd2F7%25mmd2BrNJ8G85kBKZOr1Ycsj77OSoj07FhOX%25mmd2Bhso3Kz%25mmd2FFPgVu4Jcl3a%25mmd2BA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2021. No.3	아시아 안보관 시각에서의 동북아운명공동체 수립 〈亚洲安全观视域下的东北亚命运共同体构建〉	자오양 (赵洋)	동북아논단 (东北亚论坛)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APJ&dbname=CAPJLAST&filename=DBYL20210421008&v=fgVSydHIl49QEl%25mmd2BXHXO42F43wE2ThMzCp1dh02PBX8Tkd9mcRLdyV4AeHqvHOHin
2021. No.3	쌍순환 신발전 구도에서 중국 CPTPP 가입의 정치경제적 고찰 〈"双循环"新发展格局下中国加入CPTPP的政治经济思考〉	장후이즈 (张慧智) 왕쥔야오 (汪君瑶)	동북아논단 (东北亚论坛)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APJ&dbname=CAPJLAST&filename=DBYL20210421007&v=fgVSydHIl48lj0AWWw8mOJqhBCczDYRaOr37RLKt2yMXrpz9%25mmd2FE4P8XFl15Geg7Qd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4. 일본

■ 북한 '올림픽 불참' 뒤에 있는 비참함

(다니엘 스나이더, 동양경제 ONLINE, 2021.4.11.)
(Daniel Sneider,「北朝鮮「オリンピック不参加」の裏にある悲惨」, 東洋経済ONLINE, 2021.4.11.)

- 북한의 올림픽 불참은 보건위생적 결정이자, 정치적 결정
  - 한국에게는 남북관계 재활성화 계기가 사라지는 것이고, 일본에게는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다른 국가들도 불참을 선언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계기가 되었음.
  - 그러나 북한의 결정은 김정은에 의해 향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
  - 북한은 올림픽 불참 카드로 일정수준 레버리지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의 불참은 지난 몇 개월 간 표면화된 문제들의 일부에 불과함.
  - 북한은 취약한 의료보건 시스템, 국제사회의 통제에 의하여 경제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내부통제도 어려워져 이데올로기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음
  - 지방경제의 붕괴로 인하여 함흥, 안주의 화학비료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음.
  - 연료, 전기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배급품도 부족하여 병역기간을 10년에서 7~8년으로 단축
  - 중국으로부터 식료품 및 생활용품 수입조차 모두 단절된 상황으로, 이중구조의 시장경제 운영마저 흔들리는 상황
  - 지난 8년간 안정화된 통화와 물가가 모두 불안정해져 현금에 대한 투기적 환경이 발생

-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재개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유입보다도 달러화·위안화·사람의 유출
  - '감염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현 체제가 코로나19가 만연하는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 남북 접경지역에서 북한 측 직원들은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렌지색의 화학방호복을 상시 착용
  - 최근 탈북자의 발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바이러스가 물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생선을 먹으면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갖고 있음.
  - 정치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평양종합병원 건설 역시 계획 및 자재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속도만 재촉하고 있는 현실

- 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다른 어느 때보다 큰 효과를 얻고 있음.
  - 아프리카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러시아 및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대한 노동자 파견이 불가능해짐.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 경화(hard currency)에 대한 통제는 사이버범죄의 확산으로 이어짐.
- 사이버 범죄를 통해 북한은 3억 1,600만 달러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

※ 원문 https://toyokeizai.net/articles/-/422116

■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및 관련회의와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

(미무라 미츠히로, ERINA REPORT PLUS No. 159, 2021.4.20.)
(三村光弘,「朝鮮労働党第8回大会および関連会議と国家経済発展5カ年計画」, ERINA REPORT PLUS No. 159, 2021.4.20.)

- 북한은 2021년 1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제8차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회의 등을 포함하여 총 7개의 회의를 개최

- 제8차 당대회에서는 경제발전5개년 전략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미달성 원인의 국내적 요인 검토 및 경제관리 개선의 필요성, 당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짐.
  - 선거에서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인들이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선발
  - 최고인민회의에서 선발된 내각인물들 역시 전체적으로 연령이 어린 편임.
  - 경제건설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간부들에게 자아비판과 함께 개선책 검토 및 분과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큰 변화

- 새로운 경제발전5개년계획은 경제의 기초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새로운 산업정책 등이 보이지는 않음.
  -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영부문의 기초체력향상을 중시
  - 개별적 수치보다도 국영부문 내 생산연계강화 및 계획의 착실한 수행을 강조

- 제8차 당대회는 김정은 시대를 '스타트업 단계'에서 '본격적 가동단계'로 이행하는 전환점이라 볼 수 있음.
  - 제8차 당대회에서 개혁성향이 강한 지도자와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관료들의 차가 드러났으며,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로 통치를 진행 할 것을 선언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말보다는 행동과 성과로 판단하며, 자력갱생에서도 과학기술 등 객관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스타일로, 면종복배(面從腹背)의 성향을 보이는 북한의 기존 관료들과 큰 차이가 있음.

※ 원문 https://www.erina.or.jp/wp-content/uploads/2021/04/er159_tssc.pdf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4.20.	북한경제의 기초구조와 생존전략-공업배치 관점에서 본 자력갱생노선의 실태- 〈北朝鮮経済の基礎構造と生存戦略―工業配置の観点から見る自力更生路線の実態―〉	유학수	ERINA REPORT PLUS	https://www.erina.or.jp/wp-content/uploads/2021/04/er159_tssc.pdf
4.26.	문 정권의 지지율은 왜 하락하고 있는가? 〈なぜ文政権の支持率は低下し続けるのか？〉	김명중	Newsweek Japan	https://www.newsweekjapan.jp/kim_m/2021/04/post-37.php
4.30.	위안부 '역전판결'에서 드러난 한일 온도차 〈慰安婦「逆転判決」で露わになった日韓の温度差〉	Daniel Sneider	동양경제 ONLINE (東洋経済 ONLINE)	https://toyokeizai.net/articles/-/425730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5. 러시아

■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고 있다(Сеул втягивают 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США и Китая)

(올례그 키리야노프, rg.ru, 2021.04.03.)

- 4월 2일과 3일 각각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안건은 크게 볼 때 역내 안보와 안정에 관한 협의로 국한할 수 있지만, 이는 너무 단순화된 표현임.
  -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어떻게 반중 행보를 조직하고 있으며,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의도하고 동맹국들로부터 어떠한 점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
  - 중국은 한국에 미국의 어떠한 반중 제안에도 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더 강경해질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 두 회담에 앞서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한국은 실제로 자국에 가장 중요한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선'에 참여할 것을 동시에 강요받고 있음.

- 미국이 최종 성명을 통해 일본과 한국에 주요한 군사-전략적 파트너인 자국의 노선을 지지할 것을 암시한 상황에서, 미일관계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에 이미 찬동해 문제가 없지만 한미관계는 더 복잡함.
  -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십자군 원정에 참여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이와 동시에 주요한 군사-정치적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악화도 원치 않음.
  - 나아가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발전에 노력하는 한국의 현 정부와 "대화를 염두에 두되 강경한 원칙에 기반"하는 미국 사이엔 북한에 대한 분명한 공감대가 부재
  - 이에 더해 한국이 일본과 공조하는 문제의 강행을 꺼린다는 점은 미국이 동북아에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는 완전한 삼각 군사동맹을 형성하려는 계획을 위협

- 한국은 이번에도 한국 속담에서 말하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가 되고 있음.
  - 한국의 삼성전자가 4월 12일 백악관에서 진행될 반도체 및 기타 전자기기의 전략적 공급 안정 보장을 주요한 주제로 하는 회의에 초대됐단 점에서 '고래 싸움'은 외교를 넘어 기술 분야에서도 전개 중
  - 적극적인 지지와 반중 행보 동행을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완전히 "자국의 편으로"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적어도 중립 고수를 요구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 미중 양국을 모두 필요로 하는 한국엔 두 대국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고 친교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한국은 적어도 지역 수준에선 역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 이전처럼 한국이 필사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오랫동안 이어지기 힘듦.
  - 아마도 한국의 현 정부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차기 대선까지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만 남음.

※ 원문 https://rg.ru/2021/04/03/seul-vtiagivaiut-v-protivostoianie-ssha-i-kitaia.html

■ 북한: 바이든의 외교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КНДР: ожидать ли изменений в дипломатии Байдена?)

(블라디미르 페트로프스키, The International Affairs, 2021.04.07.)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특정한" 대북정책을 준비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바이든의 외교정책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백악관 대변인은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원칙적으로 구별된다고 전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사전에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언급
  - 문제는 대화가 성사되고 어떠한 결과라도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몇 가지의 이론적 가정들을 세울 수 있음.

- 첫째, 상호 자제가 필요함.
  - 얼마 전 북한이 두 차례 새로운 전술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을 때 미국과 서울이 이에 대한 성명을 내지 않은 것은 상호 자제의 희망적인 예시
  -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회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소란을 떨지 않았으며, 미국은 아직 새 행정부의 대북 노선을 완전히 수립하지 않았기에 침묵

- 둘째, 동맹국 이외의 다른 당사국들과의 상호작용을 준비해야 함.
  -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회담과 방한 와중에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를 회담의 논의 안건 중 하나로 삼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중국적 수사를 활용하며 일본과 한국을 동원하려 함. 이로 인해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동시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한 한국은 중국에 대항해 일본과 가까워질 것을 강요받고 있음.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 셋째, 무엇보다 실현가능한 목표들을 설정해야 함.
  -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잠재력을 박탈하는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를 추구해선 안 됨. 미국이 정말로 북한의 공격을 우려한다면, 투발수단 없인 핵 공격이 불가능하단 점에서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에 관한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의 단계적 해제와 같이 상응하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대화에 동의할 것임.

- 작금의 딜레마 상황은 항상 우세한 위치에서 자신의 조건을 제시하려는 욕구와 결과를 얻기 위해선 타협해야 한다는 필요성 사이에서 나타남.
  - 조만간 미국이 어떠한 접근을 취할지 볼 수 있겠지만 중대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움.

※ 원문 https://interaffairs.ru/news/show/29673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4.01.	외국 외교관들이 북한에서 급히 떠나 (Иностранные дипломаты бегут из КНДР)	알렉세이 포플라프스키 (Алексей Поплавский)	gazeta.ru	https://www.gazeta.ru/politics/2021/04/01_a_13543586.shtml
04.02.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관심을 얻어내 (Ким Чен Ын дострелялся до внимания к себе)	세르게이 스트로칸 (Сергей Строкань)	kommersant.ru	https://www.kommersant.ru/doc/4753312#id998456
04.06.	서울이 워싱턴으로부터 중요한 외교적 승리를 확보하다 (СЕУЛ ОДЕРЖАЛ ВАЖНУЮ ДИПЛОМАТИЧЕСКУЮ ПОБЕДУ НАД ВАШИНГТОНОМ)	블라디미르 파블렌코 (Владимир Павленко)	iarex.ru	https://iarex.ru/articles/80426.html
04.09.	김정은이 위기로 인해 인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촉구하다 (Ким Чен Ын из-за кризиса призвал граждан к «трудному походу»)	안드레이 야시라프스키 (АНДРЕЙ ЯШЛАВСКИЙ)	mk.ru	https://www.mk.ru/politics/2021/04/09/kim-chen-yn-izza-krizisa-prizval-grazhdan-k-trudnomu-pokhodu.html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4.19.	조 바이든이 한국에 무엇을 할 것인가? (ЧТО Д. БАЙДЕН СДЕЛАЕТ С ЮЖНОЙ КОРЕЕЙ?)	티무르 갈랴우트디노프 (Тимур Галяутдинов)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2021:2(3), pp. 129-134.	https://cyberleninka.ru/article/n/chto-dzho-bayden-sdelaet-s-yuzhnoy-koreey/viewer
04.19.	한국, 중국, 일본의 삼각관계 - 전망과 위험요인 (ТРЕУГОЛЬНИК КИТА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ЯПОНИИ – ПЕРСПЕКТИВЫ И РИСКИ)	그리고리 푸도프킨 (Григорий Пудовкин)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2021:2(3), pp. 1422-147.	https://cyberleninka.ru/article/n/treugolnik-kitaya-respubliki-koreya-i-yaponii-perspektivy-i-riski/viewer
04.19.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장관 회담의 원인과 결과 (ПРИЧИНЫ И ИТОГИ ВСТРЕЧИ ГЛАВ МИНИСТЕРСТ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그리고리 푸도프킨 (Григорий Пудовкин)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2021:2(3), pp. 148-152.	https://cyberleninka.ru/article/n/prichiny-i-itogi-vstrechi-glav-ministerstv-inostrannyh-del-rossiyskoy-federatsii-i-respubliki-koreya/viewer
04.19.	판데믹 시기 한국의 공공외교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ЮЖНОЙ КОРЕИ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콘스탄틴 트리포노프 (Константин Трифонов)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2021:2(3), pp. 161-169.	https://cyberleninka.ru/article/n/publichnaya-diplomatiya-yuzhnoy-korei-v-period-pandemii/viewer
04.19.	국제정치의 도구로서의 북한 핵무기 체계의 역할 (РОЛЬ ЯДЕРНОЙ СИСТЕМ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АК ИНСТРУМЕНТ ДИПЛОМАТ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ЛИТИКЕ)	무하마드 파토니 (Мухаммад Фатони)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2021:2(3), pp. 175-181.	https://cyberleninka.ru/article/n/rol-yadernoy-sistemy-severnoy-korei-kak-instrument-diplomatii-v-mezhdunarodnoy-politike/viewer
04.20.	북한의 비핵화 가망이 부재해 (Нет перспективы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НДР)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https://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analytics/net-perspektivy-denuklearizatsii-kndr/?sphrase_id=76716282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4.1.~4.30.)

일자	대내	대남·대외
04.01. (목)	• [김정은 현지지도]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건설(800세대) 공사장, '시공분담구역' 등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전집≫ 제34권 출판 - '82.1~9월, 논문·담화 등 84건 수록 • 각지 농촌들, 당면한 벼 모판 씨뿌리기 진행	• [대일]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 대변인 담화 -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조작공포(1938.4.1.) 83주년 관련
04.02. (금)	• 탄원자 축하 평양시 청년 모임(시청년동맹회관) - 홍철진(평양시 당위원회 비서) 등 청년동맹일꾼 참가 • 조선인민군 한수남소속부대,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건설 주력	
04.03. (토)	•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 평양 도착	
04.04. (일)		• [김정은 축전] 세네갈 대통령(막키 살), '세네갈 독립 61돌'
04.05. (월)	•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 민족유산보호사업,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으로 진행	• [김정은 축전] 베트남 신임 주석(응우옌 쑤언 푹)
04.06. (화)	• [김정은 공개활동]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회사 - 조용원, 당 세포비서들, 중앙과 지방의 당 일꾼들 참석 - 세포비서대회 참가자 평양시내 여러 곳 참관(만경대, 당창건 사적관, 조선혁명박물관) • 중앙위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 60주년 기념보고회 - 주철규(내각부총리겸 농업상), 북청군 과수부문 일꾼들, 과학자, 농업근로자 참석	
04.07. (수)	•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2일 회의 - 조용원 등 당 비서들 회의 지도 下 '정치·경제·농업' 등 각 분야별 토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4호(3.24, 발표), 대성구역 여맹위원회 등 33개 단위에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 수여	• 총련 금강산가극단 특별공연 '봄향기' (도쿄)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일자	대내	대남·대외
	• 세계보건의 날(4.7.) 계기 보건성 관계자 출연 – '北, 인민보건사업 발전(전반적 무상치료제·의사 담당구역제 실시 및 리진료소 병원화 등) 및 보건지표 수준 강화 진척' – "우리 힘과 기술로 그 어떤 세계적인 보건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역기반을 튼튼히 축성위한 대책들 강구"	
04.08. (목)	• [김정은 공개활동]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폐막 – 당 중앙위 비서들 주석단 등단 • 109주년 태양절(4.15.) 관련 – 전국 소묘·서예축전 개막식(옥류전시관)	
04.09. (금)	• 제6차 세포비서대회 관련 참가자 강습(~4/11)	
04.10. (토)	• 제6차 세포비서대회 관련 기념공연(4.25문화회관) – 당 중앙위 간부들 참가(~4/11) •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요해(평양) –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건설, 도시경영 중앙양묘장	• [김정은 축전] 조선대학교 창립 65주년, 교직원·학생
04.11. (일)	•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9주년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위민헌신의 불멸의 자욱' 개막식(인민문화궁전)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화상방식) – 김덕훈(내각총리) 지도, 박정근 보고·전현철 내각 부총리를 비롯한 내각 성원들 참가 – 당 제8차대회와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내각의 1/4분기 사업정형 총화, 대책 토의 • 109주년 태양절(4.15.) 관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3.24.), 안일락(당 선전일꾼)에게 '김일성훈장' 수여'	
04.12. (월)	• 109주년 태양절(4.15.) 관련 – 경축 공연, '태양의 노래는 영원하리라' (농근맹 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삼봉협동농장) – 평양시 도시경영부문 일꾼·근로자들 각종 화단·화대들 장식	
04.13. (화)	• 109주년 태양절(4.15.) 관련 – 민방위혁명사적관 개관식, 리병철(당 비서)·오일정·강순남(당 부장) 등 참가 –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식인들에게 학위·학직 수여	
04.14. (수)	• [김정은 공개활동]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 조용원(당 조직비서), 정상학·리일환(당 비서), 김재룡·오일정(당 부장), 권영진(군 총정치국장) 등 참가	• [대중] 김정은 총비서, 시진핑 주석에게 신임장 봉정 • 김정은 총비서, 태양절 관련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해" 총련에 일본돈 2억 1,906만¥의 교육원조비·장학금 전달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일자	대내	대남·대외
	• 109주년 태양절(4.15.) 관련 - 중앙사진전람회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개막식, 리두성(당 부장)·승정규(문화상 개막사) 등 참가 (인민문화궁전) - 직총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공연 '영원한 우리 어버이', 박인철(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등 관람 (중앙노동자회관)	
04.15. (목)	• [김정은 공개활동] 109주년 태양절 관련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및 경축 중요단체 합동공연 '영원히 당을 따라' 관람 - 리설주, 조용원, 박정천(군 총참모장), 김여정, 현송월 참배 동행 - 최룡해, 조용원, 리병철, 김덕훈 등 관람 참석 • 109주년 태양절(4.15.) 관련 -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 금수산태양궁전에 꽃바구니 진정 - 근로자 및 인민군장병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청년학생들, 야회 및 축포발사 진행(김일성 광장) •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한 모범적 단위들 '3대혁명 붉은기' 수여 - 3중 3대혁명 붉은기: 봉화화학공장 운수직장 - 2중 3대혁명 붉은기: 평양화력 발전소 운탄직장 외 20개 직장 - 3대혁명 붉은기: 룡성구역송배전소 외 38개소	• 109주년 태양절(4.15.) 관련 - 한국 반제민전, 축하편지 발송 - 베트남공산당 중앙위 총비서 웬 푸 쫑, 구두친서 -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게. 아. 쥬가노브), 김정은 총비서에게 축전
04.16. (금)	• 109주년 태양절(4.15.) 관련 - 김정은 총비서, 전국의 원아들(육아원·애육원·초등학원·중등학원)·보양생들(양로원·양생원)에게 '선물(학용품·식료품)' 전달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쿠바 공산당 제8차 대회 앞으로 축전 및 '두 당·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협조관계 강화발전' 강조
04.17. (토)		• [김정은 축전] 시리아 대통령, 시리아 독립 75주년
04.18. (일)	•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요해 - (은률광산) 많은 철광석을 생산하여 대야금기지들에 보내주며 서해리분광산개발사업을 다그치고 선진 과학기술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 언급 - (황해남도 농업부문) 실리 있는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일 것 주문	• [김정은 축전] 짐바브웨 대통령, 짐바브웨 독립 41주년
04.19. (월)		• [김정은 축전] - 신임 쿠바 주석(미겔 디아스카넬), 쿠바공산당 제8차대회 성과적 진행과 쿠바공산당 제1비서로 선출 - 라울 카스트로, 쿠바공산당 제8차대회 성과적 진행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일자	대내	대남·대외
04.20. (화)		• [김정은 축전] 쿠바주석 생일 • [대일] 일본 사세보항에 추가 배치한 신형 이지스함의 '공동교전능력체계 및 F-35B의 기술적 제원'을 거론, "주변 정세를 빗대고 배비(배치)하고 있는 모든 공격무기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불가역적으로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 논평)
04.21. (수)		• [대일] 징병제는 조선청년들을 강제 징발하여 전쟁판으로 끌고 다니면서 억울한 죽음과 고통을 강요한 범죄라고 비난(중앙통신)
04.22. (목)		• 베트남 주석 '응우옌 쑤언 푹',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답전 - 주석에 선거된 것과 관련하여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며,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계속 더욱 공고발전되리라고 확신
04.24. (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무산수출가공구를 내옴에 대하여" 정령(4.24.) 발표	• [김정은 답전]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의 '김일성 생일(4.15) 109돌' 축전에 사의 표명 • 라오스 주석,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구두친서 - 당 제8차대회에서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축하하며,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 - 라오스 초청
04.25. (일)		• [대러] 북한 임천일 부상(외무성 러시아 담당), 김정은-푸틴 정상회담('19.4.25. 블라디보스톡) 2주년 관련 담화(4.25) 발표(외무성 홈페이지) - '北-러 친선 관계는 앞으로도 보다 높은 단계로 강화 발전되게 될 것' 강조 •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시리아 국경절 축전' 관련 답전
04.26. (월)	• 최룡해(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현지요해 - 서구역 청산협동농장·강서편직공장 방문 및 해당 단위의 영농사업과 생산실태, 일꾼·근로자들의 법무생활 정형	
04.27. (화)	•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요해 - 평안북도 농업부문 사업 - △유기질복합비료 생산 이용하기 위한 사업 중요성 강조 △기술적 지표가 보장된 비료들을 농장들에 보내줄 것에 대하여 언급 △영농물자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 토의 등 •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대회 개막(평양) - △집행부·서기부 선거 △의정(5개항) 승인 △의정 보고(박철민,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토론(김충성, 조선인민군청년동맹조직대표 등)	• [김정은 축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시릴 라마포사), '자유의 날'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일자	대내	대남·대외
04.28. (수)		• [대일] 일본의 사상 최대 규모 군사연습 강행(9~11월 육상 자위대 병력 14만명 참여) 및 최신 무력 증강(≪F-35B≫ 자위대 기지 전개 및 일본판 해병대의 수륙기동단 창설 추진 등) 추진에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고 정세불안정과 긴장격화를 몰아오는 주범"이라고 비난(중앙통신 논평) • [대일]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 '≪전시성노예제≫에 관한 보고서 발표(1996.4.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52차 회의) 25주년' 관련 담화 - "더 늦기 전에 국제기구들의 권고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과거의 범죄역사를 깨끗이 청산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충고
04.29. (목)	• [김정은 공개활동] 청년동맹 제10차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 김정은 총비서, 서한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 있게 떨치라' 전달 • 청년동맹 제10차대회 폐막 - 결정서 발표: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할 것	
04.30. (금)	• 김덕훈(내각 총리), 용매도 간석지 3, 4구역 현지 요해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대내〉

■ **현대적인 보통강강안주택구건설 착공-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현지를 돌아보시였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4.1.)**

- 4월 1일 노동신문 1면은 김정은 총비서가 보통강강안주택구건설 현장을 방문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전면에 게재함.
  - 총비서는 시공분담구역을 요해하며 800세대 다락식주택구 건설이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 인민들에게 발전된 생활환경과 조건을 제공해주려는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가 있는 대상건설이라고 강조했으며, 건설단위가 대상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고 "불같은 헌신과 완강한 실천으로써 우리 당의 원대한 수도건설정책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건설을 완수하여 "사회주의문명의 중심지로서의 우리 수도의 현대성과 주체적인 건축발전면모를 과시"하고 "무궁무진한 사상정신적위력과 굳건히 다져지고있는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다시한번 과시"해야 한다고 피력
  - 특히 당이 제시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민족성과 현대성의 정확한 배합에 기초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고 도시경영, 환경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원림녹화를 비롯한 문화적인 환경관리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발언

■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개회사-김정은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4.7.)**

- 4월 7일 노동신문 1면은 6일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한 개회사를 사진과 함께 전면에 게재함.
  - 총비서는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위해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세포비서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눈에 띄는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 위업을 한단계 전진시키려는 당대회결정의 집행여부가 바로 당의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의 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세포들의 전투력은 세포비서들에 의하여 좌우되기때문"임.
  - 또한 세포비서를 주기적으로 만나 "지도적방조를 주면서 당세포를 강화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하자는것이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의도"이며, "당대회는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의 직접적전투단위를 책임지고있는 세포비서들을 정치실무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중시하고 당대회에 맞추어 5년에 한번씩 세포비서대회를 정례적으로 진행한다는것을 당규약에 규제"했는데, 말단기층 책임자들이 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당중앙이 마주앉은 당은 북한밖에 없다고 강조

- 그는 "당세포들의 사업에 내재하고있는 결함들을 시급히 바로잡는것은 당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공정"이며 "결함들이 부분적이고 작은것이라고 하여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고 피력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결론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 를 하시였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4.9.)

• 4월 9일 노동신문 1~6면을 할애하여 8일에 진행된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 비서가 내린 결론과 폐회사 전문을 게재함.

- 세포비서대회 결론에서 김비서는 전당의 세포들이 충실하고 굳세면 극복하지 못할 난관과 점령하지 못할 요새는 없다고 피력하고 자만하거나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 바로잡아야 할 편향과 결함에 대해 지적함.
- 그는 당세포의 10대 과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 ② 5대교양을 기본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수행 ③ 당규약학습을 강화하고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 ④ 당원들 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 ⑤ 세포사업을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 관철에로 확고히 지향 ⑥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 ⑦ 입당대상자들을 장악하고 교양하며 단련시키는 데 노력 ⑧ 청년교양에 특별한 힘을 넣고 ⑨ 인간개조사업을 적극 벌리며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⑩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
- 또한 당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다음의 12가지 품성을 밝힘. ① 당성 ② 원칙성 ③ 정치성 ④ 책임성 ⑤ 이신작칙 ⑥ 창발성 ⑦ 군중성 ⑧ 인간성 ⑨ 진실성 ⑩ 낙천성 ⑪ 도덕성 ⑫ 청렴결백성
- 그는 폐회사에서 "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자"며 당이 억세고 굳건한 것은 총비서나 당중앙위가 아니라 당세포와 당세포비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함.
- 더불어 당의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당원과 당세포 비서의 심장만 믿고 있으며, 당중앙위원회부터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것을 결심"함을 밝히고 분발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하며, 당세포의 헌신분투를 확신하며 폐회를 선언함.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4.12.)

• 4월 12일 노동신문은 11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신문은 확대회의에서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1/4분기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대책을 토의하였는데 내각총리인 김덕훈이 회의를 지도하고, 내각부총리인 박정근, 전현철을 비롯하여 내각 성원이 참가하였으며, 내각 직속기관, 성기관 일꾼들,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장들, 농업지도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일꾼들이 방청했다고 전함.
- 박 부총리는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이후 내각에서 당의 경제전략에 립각하여 생산토대의 정비보강과 지속적인 생산장성에 모를 박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진행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특히 “기업체들의 경영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도적으로,법률적으로 보장해주는 사업들이 적극 추진” 되었음을 밝히고, 수행에 있어서 발생한 결함과 편향도 제기함.
- 토의에서는 2/4분기 계획수행의 결의를 표명하고 “인민소비품생산을 활성화하는것과 함께 철도현대화와 경제전반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증대”하는 문제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며, 애로와 난관을 뚫고 나가는 혁명적 자세와 입장을 더욱 확고히 견지할 것을 강조함.

■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강화, 전당단결의 초석 (노동신문, 2021.4.19.)

• 4월 19일 노동신문은 당세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설을 게재함.
- 당세포를 강화하는 것은 전당강화, 전당단결의 초석이고 기본이며, 당세포 강화를 결정적으로 개선할 때 혁명이 승기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다고 주장
- 오늘날 노동당은 전당의 수십만 세포들이 ㎡당책임제의 원칙에서 자기가 맡은 혁명진지를 굳건히 고수하고 혁명화, 공산주의화하자는 투쟁목표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
- 당세포는 당정책 관철의 직접적인 전투단위로서,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강령과 방침들은 전당의 당조직들, 구체적으로 당세포들을 통하여 대중에게 전달된다고 설명
- 모든 당세포비서들은 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의 기본사상과 과업들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세포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전당강화, 전당단결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독려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 단위의 오늘과 래일을 다같이 책임자는 립장에 서자 (노동신문, 2021.4.24.)

- 4월 24일 노동신문은 모든 일꾼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하는 논설을 게재함.
  -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일꾼들의 마땅한 본분이며 의무라고 주장
  - 일꾼들은 지속적이며 전망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하며, 현재의 생산토대가 충분하다고 해서 미래의 생산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면 내일에 가서는 자기에게 부과된 국가계획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
  - 단위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책임지는 데서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역량, 인재 역량을 꾸리는 사업에 힘을 다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인재, 경영 인재, 관리 인재를 발굴하고 의도적으로 키우는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

■ 시대의 요구를 자각하고 선질후량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노동신문, 2021.4.27.)

- 4월 27일 노동신문은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일 것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함.
  - 김정은 총비서가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서의 연설에서 건설작업의 전 공정에서 질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친 것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가르침에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의 일꾼·근로자들이 가슴깊이 새겨야 할 숭고한 뜻이 담겨 있다고 주장
  -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 것은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을 힘차게 추동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고 설명
  - 모든 일꾼과 근로자들은 질 제고를 실무적인 문제가 아닌 중요한 당 정책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생산과 건설에서 선질후량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독려

■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력사적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낸 서한-김정은 (노동신문, 2021.4.30.)

- 4월 30일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낸 서한을 게재함.
  - 김정은 총비서는 청년동맹 제10차대회가 청년동맹 사업의 혁신과 강화발전을 위한 의의있는 성과들을 달성한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기술
  - 이번 대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하는 결정이 채택되었는데, 새로운 명칭에는 혁명의 현 단계에서의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청년운동의 성격과 임무가 명백히 담겨 있고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이상과 풍모가 집약되어 있으며, 청년조직으로서의 고유한 맛도 잘 드러난다고 평가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중요한 세 가지 과업은 ①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한 애국청년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 동맹사업을 총지향시키는 것, ②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모든 청년들을 영예로운 사회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것, ③ 청년들을 사회주의 도덕과 문화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
- 전례없이 준엄한 형세 속에서 방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오늘의 시대에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기개를 떨치자!”, “전 동맹이 초급단체를 도와주자!”는 구호를 가져야 한다고 독려

■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대회 결정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4.30.)

• 4월 30일 노동신문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바꿀 것에 대한 결정서를 게재함.

- 김정은 총비서가 혁명과 청년운동 발전의 새로운 요구,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의 의사와 염원을 깊게 헤아려 기존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하도록 했다고 설명
- 이러한 결정에는 모든 청년들이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숭고한 염원과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갈 포부와 열정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 것을 바라는 김정은 총비서의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명칭에는 청년동맹의 본질과 애국적 성격, 청년동맹이 사회주의 건설의 후비대라는 것이 명백하게 담겨 있으며,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총체적 목표와 투쟁과업으로 삼고,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충실성을 생명선으로 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선포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대외〉

■ 일본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 말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21.4.2.)

- 4월 2일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을 비난하는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유가족협회 대변인 담화를 게재함.
  - 대변인은 일본은 1938년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을 통해 조선인들을 노동노예와 성노예로 끌어다가 고통과 죽음을 강요했고 이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특대형의 국가 범죄라고 언급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러한 반인륜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대신 이를 한사코 부정하고 정당화하면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하는데, 가장 큰 피해자인 북한을 "항상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국제무대에서 악의에 찬 망발을 일삼고 조선반도재침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을뿐아니라 강제련행피해자들이며 후손인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탄압하고 제재를 가하다 못해 재일조선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까지 폭압의 마수를 뻗쳐 그들의 교육권과 보육권을 엄중히 침해" 하고 있다고 비난
  - 그는 "공화국과 총련,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제재와 압박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악착하고 무분별한 망동에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하고,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는 일본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 말것"이며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성 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4.6.)

- 4월 6일 조선중앙통신은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를 비난하는 보건성 소장의 담화를 게재함.
  - 소장은 "비상방역조치로 하여 수많은 영양실조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다는 황당한 날조자료가 뻐젓이 언급"된 사실에 대해,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상기자료가 전혀 사실무근하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단언하면서 단호히 배격"함.
  - 그는 국가사정이 어렵고 모든 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최우선중대사로 내세우고 있으며, 때문에 유엔이 이와 같이 "현실을 외곡하고 있는것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불순한 적대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어린이들의 깨끗한 이름마저 정치적목적에 도용하고있는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처사를 준렬히 단죄"한다고 비난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

- 또한 남한의 언론에 대해 어린이들까지 건드리면서 남북대결을 야기시킨다면 후대들 앞에 씻지 못할 대죄를 지게 될 것이라 비난하고, “유엔과 비정부단체의 간판을 가지고 진행되는 ≪인도주의협조≫ 사업이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엄정히 검토하며 적대세력들과 한짝이 되여 돌아치는 기구와 단체들에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미래는 우리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주장

■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4.29.)

• 4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시성노예제 보고서 발표 25주년을 맞아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보도함.
- 1996년 4월 발표된 전시성노예제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피해국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
- 그러나 보고서가 발표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비난
- 일본이 국가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를 쓰고 교과서에서 성노예 범죄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등 범죄사실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국제법과 인륜도덕을 위반한 국가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

※ 일러두기 ※
* 연구동향(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의 경우 해당자료의 홈페이지 업로드(또는 입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 각국의 상황 및 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분량상의 차이 발생 가능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 www.kinu.or.kr